

2025년 6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5.6.24.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9/10	6	1	16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김욱 위원장, 백강희 부위원장,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문선혜 위원, 박은숙 위원, 이현욱 위원, 최승인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7	3	-	-	10	-	10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0	-	-	10

다. 전월(5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용어 사용 관련> 공약에 대한 '검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설계대로 이행되는지 검사와 증명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평가'와 '진단'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해 보임	검증이라는 단어 사용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평가와 진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쪽으로 용어 정리를 하겠음 <25. 6월 조치>	'25.5월
보도	<누누TV 노출 관련> 불법 OTT 사이트 판결 보도에서 '누누TV'를 노출했는데,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다른 어둠의 경로를 알려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출시켜야 했는지 아쉬웠음	누누TV 노출 문제는 간접 광고 효과와 새로운 불법을 부추기는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 용어사용에 대해 조율하겠음. <25. 6월 조치>	'25.5월
보도	<신에너지 빈곤층 관련 보도> 에너지 빈곤층이 예전에는 겨울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여름나기가 쉽지 않음. 대책 마련과 관심 유도를 위해 날이 더워지기 전에 6월부터 다뤄주었으면 함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 더울 때 땀 흘리고 고생하는 분들만 다뤘는데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음 <25. 6월 조치>	'25.5월
보도	<김하늘 양 관련 보도> 교사들이 CCTV 설치 반대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학부모, 학생, 시민들의 의견도 균형있게 다뤄졌으면 좋겠고, 다른 대체 가능한 안전 확보 방안은 없는지 후속 보도가 필요해 보임	현재 한 달에 한번 정도 공판이 이어지고 있고 선고가 나오면 이송화되기 때문에 그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음 <25. 6월 조치>	'25.5월
교양	<주제선정과 토론방식> 시시각각에서 형식적인 토론이 아닌 실질적인 토론을 기대하고, 향후 아동 및 청소년 문제, 문화적, 환경 사회적 분야까지 소외된 이슈까지 다뤄주길 바람	바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반영을 하겠음. 다양한 주제 선정과 토론 방식과 관련된 의견은 제작진에게 전달하겠음 <25. 6월 조치>	'25.5월
교양	<테마기행 길 지역 소재> 업로드 된 콘텐츠에 비해 대전 충청 지역을 다룬 부분들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적음. 더 많이 다뤄질 수 있기를 바람	대전충남은 시군이 많아서 방송 순서가 돌아오는데 4년 정도 걸림. 자주 못 다루는 우리 지역의 얘기는 <오늘M>에서 더 많이 다룰 수 있도록 하겠음 <25. 6월 조치>	'25.5월
교양	<정책 토론 구성> 토론 프로그램답게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인 공격과 비난보다는 정책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이뤄지고 시청자들의 질문을 받아 구성해 주길 제한함	이번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출연해 토론을 벌이는데 상호 비방전으로 흐르지 않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5. 6월 조치>	'25.5월
교양	<선거 후 공약 이행 검토> 선거가 끝나면 선거 공약이 잘 이뤄지는지 또 낙선자들의 좋은 공약 부분도 검토해서 실익을 찾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었으면 함	대선 이후에는 공약이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제일 관심이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후속적인 공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보겠음. <25. 6월 조치>	'25.5월
교양	<인생내컷 내용 관련> 양봉업자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성공한 이야기가 아닌 기후 환경과 치유 농업까지 다루었는데 미래 세대를 살아야 하는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함	인생내컷은 휴먼 다큐임에도 불구하고 다루다 보면 의도치 않게 환경이나 문화 예술의 문제까지도 넓혀지는 경향이 있음.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음 <25. 6월 조치>	'25.5월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5년 6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임기)
위원장	김 옥	배재대학교 총장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문화단체	25.5.1~27.4.30
부위원장	백강희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가족심터 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24.5.1~26.4.30
위원	이섬고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재능나눔 징검다리	청소년단체	24.5.1~26.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총보팀장	민주노동대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4.5.1~26.4.30
위원	문선혜	전앤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5.5.1~27.4.30
위원	박은숙	지역문화정책연구소 대표	원도심문화예술인행동	문화단체	25.5.1~27.4.30
위원	이현욱	우송대 글로벌미디어학과 교수	한국영화교육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최승인	초록우산 충청권역총괄본부장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소외계층대변	25.5.1~27.4.30
위원	조원희	(주)지란지교시큐리티 대표이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	25.5.1~27.4.30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팩트 체크 코너 관련> 팩트체크 관련 '세종보 수문을 열어도 녹조 발생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는 찬반 비중이 동일한 것 같은데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함. 다양한 의견과 접근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뉴스 영상 썸네일 관련> 대전MBC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라온 동일한 내용의 보도 영상의 썸네일 형식이 다른데 동일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회의록 첨부	○		
보도	<노동자 사망 사고 보도 관련 > 지역에서 거의 매달 하청업체 직원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리박스를 관련 보도> 대전판 리박스에 대한 심층 보도가 있었는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보도	<뉴스 자막 사용 관련> 뉴스 자막을 너무 생략하다 보니까 실제 보도 내용과 다르게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중립성을 저해할 요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자막을 사용해 주길 바랍니다	회의록 첨부	○		
보도	<아산 종교단체 관련 보도> 아산 종교단체의 만행에 대해 단독 보도를 하였고 여러 입장을 담은 후속 보도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했음. 무고한 시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련 취재를 부탁함	회의록 첨부	○		
보도	<한화이글스 관련 주제> 야구 관람이 어려운 노인들의 소외문제, 장애인 보조좌석 문제점, 야구장 주변 교통문제와 상인들의 입장 등 야구장과 표 판매 시스템의 문제 등을 다뤄주길 바랍니다	회의록 첨부	○		
교양	<세대 갈등 관련 방송> 최근 세대 갈등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3년 전 방송했던 '말과 함께' 라는 콘텐츠처럼 세대갈등을 다루는 방송을 해주길 바랍니다	회의록 첨부	○		
교양	<데일리 프로그램 관련> <오늘M>에서 다채롭게 구성해서 많은 지역의 정보를 주고 있는데 지역에 보이지 않는 분석 같은 보물들을 많이 찾아주고 지역 아젠다도 많이 발굴해 주길 바랍니다	회의록 첨부	○		
교양	<수어 방송 관련> 뉴스에서는 수어 방송을 볼 수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수어 방송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함.	회의록 첨부	○		

2025년 6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5년 6월 24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9명)
김옥 위원장, 백강희 부위원장,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문선혜 위원, 박은숙 위원, 이현욱 위원, 최승인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경영국장

지금부터 6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9분이 오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들을 배부해 드렸는데요. 6월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건 2건입니다. 영상 구매 문의 1건과 방청 관련 문의 1건입니다. 게시자 비공개 처리로 비공개 처리했는데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대전MBC 진종재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비도 오고 곳은 날씨인데 9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셔서 더 반갑고요. 오늘도 좋은 의견 주시면 프로그램 제작하는 과정에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시청자 위원을 대표해서 김옥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청자위원 9분이 나오셔서 활발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른 쪽에 계신 백강희 부위원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뉴스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 지역 아젠다에 집중하는 시리즈

가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 중 하나가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소개하는 이음 시리즈, 두 번째는 최근에 시작하는 팩트 체크 시리즈입니다.

특히 '이음' 시리즈는 지역 소식 미담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뉴스 패키지 안에서 미담류는 단발성 기사라든지 행사 위주가 많았는데 이렇게 연속 시리즈로 기획을 하신 건 굉장히 뜻 깊고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언론사에서 지역 밀착형 뉴스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이음 시리즈가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팩트 체크 '뉴스참'인데요. 지역 의제에 대해서 참된 사실이 무엇인지를 검증하는데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검증한 지역 아젠다가 '세종보 재가동 과연 친환경인가'였는데요. 보도 말미에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MBC에서 판정을 내리시는 것 같거든요. 팩트 체크 결과를 명시적으로 보여주시는 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 18일에 '세종보 수문을 열어도 녹조 발생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세종시의 주장을 참인지 거짓인지 팩트 체크를 하셨는데 그 근거가 세종보 재가동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같은 비중으로 신고 계셨거든요. 특히 찬성하는 입장은 세종시와 충남연구원의 주장, 반대하는 입장은 환경단체와 환경부의 입장을 실어주셨는데 제가 그 보도만 보기에는 찬반 비중이 동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팩트 체크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판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판정하셨는지 그 기준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상으로는 동일하게 처리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친환경적이거나라는 프레임에서만 보면 당연히 환경적인 거는 민감한 문제이지 않아요. 세종보 자체가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팩트 체크를 하는 검증 대상에 접근하실 때 다양한 의견과 접근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사소한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 시청자들은 대전MBC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뉴스를 소비하지만 유튜브에 탑재한 뉴스 아이템을 보고 MBC와 관련된 지역 소식을 듣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대전MBC 웹사이트에 탑재된 영상과 유튜브에 탑재된 영상을 번갈아가면서 봤는데요. 내용상으로는 동일했지만 썸네일 형식이 달라서 동일하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동영상은 방송 영상 중에 한 장면을 캡처한 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첫 장면 영상은 별도 썸네일을 제작하셔서 탑재하셨더라고요. 이 형식을 통일해서 동일하게 해 주신다

면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아젠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상에도 동일한 뉴스 아이템인데 중복으로 탑재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의 같은 보도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중복되지 않도록 시청자들이 보기에 편한 방법과 형식으로 탑재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옥 위원장

백강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성일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성일 위원

보도를 실시간으로 챙겨보지 못해서 유튜브와 대전MBC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2월은 대선이 있는 기간이었는데 그 쪽에 많은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MBC는 태안화력 사망사고 보도를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보도를 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지훈 보도국장

거의 매일 한 것 같습니다.

정성일 위원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뉴스데스크에서만 25건 보도됐는데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양적으로도 많았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만족했거든요. 보도가 단순히 사망 사고에만 초점이 잡힌 게 아니라 그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까지 찾아가는 보도였던 것 같아서 보도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청과 재하청의 구조적 문제까지 지적하면서 사망의 원인이 2인 1조로 근로가 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보도를 해주셨고요.

이후에 사망 사고가 한 건 더 있었죠. 대한전선에서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하청 사망 사고였는데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충남 대전 지역에서 거의 매달 산재 사망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하청업체 직원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처럼 언론이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리박스쿨이라고 해서 학부모들도 우리 학교도 이렇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리박스쿨에 대한 단순한 보도를 넘어서 대전MBC에서는 대전판 리박스쿨까지 추적하면서 심층 보도를 한 걸 잘 봤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어야 지역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위탁 문제까지도 집어서 인권센터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 이전부터 인권센터 위탁 과

정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현충일 보도도 잘 봤습니다. 한 건의 보도였지만 단순히 현충일 행사 보도를 넘어서 그 앞에서 국립묘지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주신 점은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 저자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딸과 함께'라는 프로그램이 3년 전에 만들어졌던 콘텐츠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최근 세대 갈등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방송에서도 다시 한 번 세대 갈등을 넘어서는 방송을 기획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전에 제주MBC에서 촬영을 하고 왔는데요. '청년, 미래로 잇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전국에서 모인 8명의 청년이 지역별 국가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굉장히 재미있었고 라디오로 방송되려다가 TV방송으로도 나오게 된 과정이 있었는데 대전MBC도 그런 새로운 기획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정성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섬교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섬교 위원

저는 학부모 입장과 청소년 단체의 회장 입장에서 위박스쿨에 관한 보도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6월 11일에 '학교에 침투한 보수 종교 단체 강사 교육 실태 확인', '혐오와 차별 공교육 침투 청소년 기관 수탁 논란', 6월 12일에는 '대전판 리박 스쿨 선정 과정도 의혹', 6월 20일은 리박스쿨과 단체뿐만 아니라 '극우 세력 공교육 침투 교육감 사퇴해야' 이렇게 보도가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청자와 학부모 입장에서 하나의 주제에 대한 문제점을 MBC가 짚 뚫고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뢰감이 많이 생겼고요.

IT기술을 활용한 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에 잠입 취재 과정을 보도해 주셨는데 기자분이 선착순 20명 안에 들어서 일정 교육 기간을 제공하는 학교 강사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보도하신 것을 보고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생동감과 현장감을 느꼈습니다. 이걸 어떻게 취재하셨을까 궁금했고 역시 대전MBC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에서 나온 자료 중에 2012년도에 이런 우려에 관한 목소리를 인터뷰 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같이 보도를 해 주셨어요. MBC가 현 상태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전의 부분들까지 인지하고 우려되는 부분들을 비교해서 보도해 주셨는데요. 공정하다는 생각과 신뢰감을 주는 부분이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캠페인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유튜브에서 뉴스가 끝나면 강아지 그림과 함께 유기견 입양 캠페인이 있습니다. 반려견이 많은 시대에 잃어버린 주인을 찾지 못한 유기견을 입양하자는 내용인데 그 몇 초간의 캠페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MBC의 모습이지 않을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김옥 위원장

이섬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화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미화 위원

저도 이섬교 위원님과 같이 윤소영, 문은선 기자님이 보도하신 대전판 리박스쿨... 보수 주도 단체가 극우 성향을 띠고 학생들에게 왜곡된 성 기준과 성 역할에 관해 이야기하는... 성평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키울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훼손되고 있다는 보도를 봤어요.

6월 12일자에 IT 기술을 활용한 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홍보를 했지만 그게 성교육 과정 강사를 모집해서 교육시킨 후 학교에 파견하고, 또 일자리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7천여만 원을 대전시와 동구청이 지원했다는 걸 알았는데요. 이 일은 전에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직원과 프리랜서 강사님 10~20여 분 정도가 이미 했었던 일인데 일자리 맞춤형 사업으로 둔갑해서 그렇게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 과정이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서구청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직접 해봤는데 실제로 심사 과정이 까다롭기도 하고 얼마나 일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보고, 과거에 있었던건지 아닌건지도 심사과정이 촘촘한데, 그냥 그 기관에 퍼주기 식으로 사업비를 지원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그 행정이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대전MBC에서도 보도할 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막을 너무 생략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자막이 없어지긴 했지만 'IT 강사 교육 실체는?' 하고 나왔는데 자막에 성교육이라는 말이 아무데도 쓰여 있지 않아서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지 광고로 사람들을 오게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독교 단체가 극우 성향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나온 거지 하고 유심히 종교성이 있는 단체는 더 볼 것 같아요. IT를 가르치지 않고 성교육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을 해 주셨거든요. 중립성을 저해할 요소에 대해서는 자막을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와 인권센터가 수탁 받는 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술렁 술렁 넘어가다 보니까 같은 단체가 이것을 위탁 받았나 하고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겠

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권센터는 한국정직운동본부,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는 넥스트클럽이 다르게 받은 건데 뭉뚱그려서 다루다 보니까 그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보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 싶어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음' 보도인 '착한 기증의 영향력 웃기는 경매'를 봤는데요. 종촌사회복지관에서 병원비를 후원해 주시는 것을 뉴스에서 짧은 코너로 만들었는데 작년에 '너무 부정적인 소식을 듣다 보니 우울한데 미담이나 즐거운 소식도 전해 달라'고 애기했는데 그 부분을 해주셔서 좋았고요.

'팩트체크 뉴스참' 관련해서 사람들이 아침 시간에 뉴스를 길게 자세히 보기가 어려운데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있는지 아니면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도움이 될지 과학적 근거에 의한 환경 정책이 절실하다고 핵심을 짚어주셨거든요. 사람들은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잘 전달받고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좋은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인생내컷>에서 어반스케치 작가 소형을 봤습니다. 도시의 풍경을 수집하는 건데 테미공원이거나 보문산 등 지역에 가서 그림도 그리면서 그림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대전 지역도 소개하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초록초록한 곳을 많이 가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힐링이 되고 대전이 노잼도시가 아니라 재미가 곳곳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요. 다음은 문선훈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문선훈 위원

<시시각각>프로그램 꼭지 중에 '한화이글스 가을 야구로 비상할까'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관련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저는 그 주제 설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 언론만 할 수 있는 아젠다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나라 언론 보도 자체가 너무 중앙 집중적이고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동네 소식에 가까운 소식을 토론 프로그램에서 만나볼 수 있어서 흥미를 갖고 재밌게 보았어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주제 자체가 '한화이글스가 잘하고 있다', '이제 가을 야구 갈 수 있나'로 희망적인 이야기와 야구 얘기 비중이 많았는데요. 저는 한화이글스가 올해 야구를 잘하면서 대전 지역 전반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실제로 야구장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야구장에 오시는 관객의 거의 99%가 20~30대 젊은이들이에요. 노인들은 야구장 티켓을 구할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의 노인 소외 문제를 단편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고 신 구장을 지으면서 장애인 석이 문제가 많거든요. 처음에 장애인석 만들 때 페인트로 자리 표시만 해놓고 옆에 보조자 좌석이 아예 없다가 지금은 정식 의자를 갖다 놓긴 했지만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같이 지적해 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구요.

중간에 지역 상권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꼭지가 잠깐 있어서 의미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 택시 기사들한테 여쭙보면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은 야구장 근처에 아예 가지를 않는데요. 교통 혼잡 문제가 너무 심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런 문제들이나 실제로 야구장 인근 상인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지역 밀착적인 아젠다를 설정한 김에 지역 인심과도 밀착해서 그런 이야기를 더 풀어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패널로 나오셨던 분들은 야구 전문가들이신데 야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중앙에서 충분히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여서 아쉬웠지만 지역 밀착 주제를 선택한 것은 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교양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오늘M>을 보기 시작했는데 기획에 대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제도 다양하게 뽑고 구성도 좋다고 저는 평가하는데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지역 프로그램으로 자랑할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옥 위원장
문선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은숙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은숙 위원
저도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화이글스 가을야구로 비상할까' 주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덧붙이자면 이 주제를 2023년, 2024년 해마다 한 번씩 다루던데요. 올해는 지역 경제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라고 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었는데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지난해나 제작년이나 그 포맷들이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제 자체가 '타선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최종 성적을 예측해 달라' 이런 질문이다 보니까 너무 뻘한 질문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한화생명 볼파크가 2025년도에 정식으로 개장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민선 7기에 베이스볼 드림파크라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 후에 운동장 철거 문제라든지 구장 명명 문제라든지 그 지역에 빛 공해나 소음공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특히 개장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한화 성적보다는 베이스볼 드림파크에 대한 부분들도 MBC에서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사업을 실제 제안했던 김기탁 교수도 나오셨는데 질문 자체가 상당히 평이한 질문들이어서 약간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주제여서 토론인데 복장들도 무겁지 않게 편안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서 좋기는 했습니다. 지역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을 시시각각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데일리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일리 프로그램이 MBC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또 MBC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오늘M> 프로그램을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날씨나 문화 소식, 명소 등 알차게 정보들을 채워서 딱 차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들의 연극 도전기를 소개할 때도 실제 연극과 배우들의 이야기를 적절히 편집해서 정성을 들인 편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톡파민'이라든지 '충분해요' 이런 네이밍들도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세세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많이 와 닿았고요. 개인적으로 톡파민의 마지막 자막들이 올라갈 때 리포터가 정성스럽게 인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풀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뒷모습이지만 그 모습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가슴 찡하게 봤습니다.

MBC가 지역에 보이지 않는 보석 같은 보물들을 많이 찾아주고 지역 아젠다들을 많이 발굴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박은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현옥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현옥 위원
저는 <오늘M>과 <인생내컷>을 보면서 듣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TV를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아서 틀어 놓고 듣는 형태로 모니터를 많이 하는데 <오늘M>은 리포터와 일반인이 대화하는 걸 보니까 리포터가 호응을 끌어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리포터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눈에 보였고, <인생내컷>에서는 꽃차 명인으로 나온 분과 시인으로 바뀐 전 산림청장님이라든지 소소하게 담겨 있는 내용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뉴스에서는 우측 하단에 수어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소소한 것들이 장애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프로그램에도 수어 방송이 나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안 나가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간대에 편성돼서 나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언어 종류가 한국어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수어도 모국어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이런 좋은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막 말고 수어 방송도 나갔으면 어

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승인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최승인 위원

6월 5일 목요일에 방송된 <오늘M>에 대한 코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창작 발레 '갓'이 방영됐는데 예술인들의 삶과 열정을 들여다보는 문화 나들이 코너였던 것 같은데요. 젊은 무용가들의 가장 한국적인 소재인 전통 모자 갓을 모티브로 해서 창작 발레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발레 공연이 아직 대중들한테는 익숙하지 않고 한국적인 발레라는 부분들이 매우 생소했는데 한국 창작 발레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현장을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K콘텐츠의 전 세계화를 위한 우리 지역 출신 청년들의 열과 혼을 잘 표현한 방송이었습니다. 아울러 대전 충남 지역에는 우리 지역을 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예술과 접목한 더 많은 콘텐츠와 청년 예술인들의 다양한 노력의 성과물이 있다면 계속해서 발굴해서 방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10일에 방송된 뉴스데스크 대전MBC 단독 보도 건입니다. '아산 종교단체의 만행'이라고 김성국 기자님께서 단독 보도를 해 주셨는데요. 법원 판결에 불복한 걸 넘어서 폭력을 행사한 종교 단체에 대한 단독 보도였습니다. 2022년에 민법에 명시된 주위 토지 통행권 요구 소송에서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무단 침입하여 폭행하고 심지어 방화 시도까지 한 단체의 만행을 보도한 내용인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인터뷰상으로는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불법 건축물과 농지법 위반 관련 철거 명령 외에 벌금 이력까지 후속 보도로 방송을 해 주셨고요. 법원 판결과 더불어 종교 단체 주인 그리고 아산시의 입장을 잘 담으면서 방송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신 점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아직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도덕과 사회 규범, 그리고 합법적 판결에도 위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억울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고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 침해 관련 제보 접수와 관련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6월 16일에 공주 밤마실 야시장 잠정 휴장에 대한 보도였는데요. 16명이 식중독에 걸린 보도였습니다. 최근에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야외 푸드와 야시장 개념의 먹거리 환경이 상설되고 이벤트성 행사가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노점과 푸드 트럭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불법 부스 및 간이 매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

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위생 상태와 행사장 이동 통행로 불편 등 민원 발생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차원의 운영은 오히려 주변 상점 매출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오히려 역차별 요소가 있고 관광객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자체 시정 행사와 야시장과 푸드 트럭이 이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에 곳곳에 유사한 형태의 야시장 및 축제장이 준비될 텐데 식품 위생 관리라든지 오펀수 무단 방류 그리고 쓰레기 투기, 지역 상권 영업 지장, 고성방가 그리고 인근 주민 생활권까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취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건 본회의 외 의견일수 있는데요. 6월 3일 중앙에서 방송된 선택 2025 대선 개표 방송인데요. 선거 카운트 방송을 보기 위해서 MBC 개표 방송을 본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MBC의 개표 방송은 시사를 잘 반영하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화려한 영상 기법 그리고 스토리텔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출구조사 전 발표한 영상이 약 1분 30초가량 제작되어서 가장 긴장된 순간을 광복 80주년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영상 한쪽에는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보여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을 표현해서 통합과 발전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에 손기정 선수의 역주로 시작이 되고 3.1운동에서 촛불과 응원봉으로 이어지는 민중의 항거를 잘 표현하셨고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광복 1주년 기념사에 남긴 내용들을 문화강국으로의 정신을 현재의 BTS UN 연설로 전달한 벽찬 울림이었습니다. 아마도 국가 위기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의 의미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한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심어주기에 충분한 영상으로 유례없이 민주주의는 역사를 지켜왔고 또 지키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잘 담아주셔서 아마도 전 세계인들이 관심이 많았을 이번 대선인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또 어떤 메시지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을 잘 전달해 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획과 제작에 힘써주신 MBC측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청자의 한사람으로서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 삶을 존중하는 공영방송 MBC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최승인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존에 계신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이번에 새로 되신 위원님들도 아주 성실하게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관심 있게 봤던 프로그램이 <시시각각>이었는데요. 한화이글스 관련 방송할 때 배재대학교 김기탁 교수님도 출연했고, 또 대선날인 6월 3일에 야구장에서 시구도 하고 야구 구경도 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어떤 문제점 특히 문선혜 위원님 말씀하신 압고가 성행하고 표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젊은 사람들이 더 관심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또 볼파크의 문제점도 다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이번 프로그램의 제목은 '한화이글스 가을 야구로 비상할까'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들을 못 다룬 것 같은데 다음에는 야구장의 문제점과 표 판매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주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의견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대전MBC 뉴스는 다른 지역 방송과는 차별성을 갖자는 취지로 기획 뉴스 그리고 집중 보도 연속 보도 이런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앙 언론사들만 하는 팩트 체크도 로컬이지만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다행히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기존에 했던 로컬 뉴스와는 차별성을 두면서 시인성이 높게 여러 가지 화면 구성이나 작가님들의 도움도 받고 검증단도 별도로 꾸려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2편째였고요. 첫 번째는 대전 3대 하천 준설 논란에 대해서 검증을 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참인지 거짓인지 맨 마지막에 판정이 중요한데 저희가 별도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는데 이번 2편에서는 그런 것을 세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총 10편을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 또 다음 달 계속 연속해서 나가는데 꼼꼼히 봐주시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음>은 지난해부터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요즘 경성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슈들이 태안 화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너무 많아서 기회 될 때마다 넣어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매일 나쁜 소식만 전해드리는 뉴스가 아니라 가슴도 울리고 감동도 주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준비해서 송출하도록 하겠고요.

태안화력 보도 말씀해 주셨는데 6년 전에 김용균 씨 돌아가셨을 때 대전MBC가 처음에 단독 보도를 했고 상도 많이 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켜서 이번에 김충현 씨 돌아가셨을 때도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모든 기자들이 협력해서 주말 휴일 마다하지 않고 취재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한전 KPS측과 싸워가면서 자료를 요구해 받아서 계속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안화력 관련 보도는 계속 끌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리박스쿨 관련해서 대전 넥스트 클럽이라는 곳을 취재하게 됐는데 윤소영 기자가 구글폼 IT전문가 양성 과정에 신청을 했더니 거기서 무방비로 받아주셔서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잠입 취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언론 윤리에 관한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훌륭하게 취재를 했고 그 내용들을 담아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에 대한 뼈뿔어진 편견을 교육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오늘 보도에서는 최근 모 국립대학에서 교수님이 헌법 강의하면서 '문재인 간첩이다' 발언하신 내용들도 있어서 결은 약간 다르지만 학교 교육 현장에서 극우적인 사상들이 많이 드러나서 관련 보도를 계속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시시각각>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화이글스는 저희 지역에서는 젊은 층들이 소구하는 콘텐츠 지적 자산 형태로 활용돼서 젊은 층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고, 문선혜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중장년층이나 노년층들의 향유할 기회가 적은 부분들... 한화이글스가 단순히 스포츠 구단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인 자산으로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깊이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뉴스나 시시각각에서 또 할 수 있는데 가을 야구 가게 되면 다각적인 측면으로 보강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종교단체 보도도 힘줘서 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단체는 서울에 본부가 있고 아산에는 기도원이라는 합숙 시설이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거의 사이비 종교 단체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대응도 하고 반박도 오지만 다 수용해 가면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조절해 가면서 보도하고 있고요. 기자들이 끈질기게 바꾸기를 원하더라고요. 단순히 단발성으로 한 꼭지만 해서 피상적인 것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계속 파고 싶어 하고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데스크들의 역할인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대신 시청자들의 눈높이나 상황들을 감안해서 관련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 사항중에 유튜브에 탑재한 뉴스와 웹사이트에 탑재한 동일 뉴스의 썸네일 형식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확인해 보고 통일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뉴스 자막 관련해서도 시인성 있게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고민하는 게 기자들은 내용을 알고 기사도 쓰고 자막도 작성하지만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는 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혁 편성국장

정성일 위원님께서 <딸과 함께>같이 세대의 갈등, 자식과 부모의 갈등을 다루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부녀간의 갈등은 아니지만 학생과 교사의 고민을

서로 공유하면서 풀어나가는 <오지랄 보건설>, 또 실버 노년 세대가 뭐가 필요할까 팝업 스토어를 만들어 나가면서 노인 세대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애들은 가라 1호점>, 그리고 지역 소멸이나 지역 생존을 AI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라디오 12부작이 하반기에 준비돼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등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도 어반스케치 작가 소영씨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6월에 <인생내컷>이 묘하게 초록초록하게 예쁜 소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조원환 전 산림청장 이야기와 어반스케치는 대전MBC에서 제작했는데 저도 꽤나게 본 것 같습니다.

문선혜 위원님과 박은숙 위원님이 <오늘M> 주제가 다양하고 기획도 좋고 '꼭 차 있다', '정성을 많이 들이는 편집이다' 라고 칭찬해 주셨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종합 매거진 형식이다 보니까 화제의 현장이라든지 유행하는 장소, 먹을거리, 인물들, 날씨까지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와 공익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여주는데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파민을 하고 있는 이영준 리포터는 본업이 연극배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인터뷰할 때 인터뷰가 짧거나 다운돼 있는 경우에 업 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연극배우의 특성을 잘 살려서 TV쪽으로 잘 녹아들게 하고 있습니다.

최승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작 발레 관련해서 윤별 발레 컴퍼니가 '갯'이라는 공연을 올리면 보통 티켓 오픈과 동시에 바로 매진되더라고요. 이분의 고향이 대전이라서 대전에 대한 사랑이 어떨까, 또 국악과 발레를 접목하면 어떨까 해서 다뤘는데요. 예술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문화가 소식은 저희가 매주 한 번씩 좋은 소재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현욱 위원님께서 <인생내컷>에 수어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수어 방송 같이 장애인을 위한 방송들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절반이고요. 자부담이 절반인데 1년에 7,7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 여건상 현재 수어 방송은 뉴스데스크만 하고 있고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자막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게 다 못할 것 같아요. 기자회견이나 중요한 방송만 수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진중재 사장님 마무리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중재 사장

많은 위원님들이 새로 오시고 두 번째 회의인데 좋은 문화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보다 저희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평가하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내용의 양이 상당할 것 같은데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도와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계 그리고 교육계 이슈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 이어서 지역 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대로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제작진이 고생해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첫 런칭을 합니다. 7월 회의 때 좋은 의견들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굿은 날씨에도 참석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새 프로그램은 편성 시간이 확정되면 단독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6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치겠습니다.